테마칼럼

문학과 사회 | 금융&증권 | 디자인 세상 | 과학과 미래

완벽한 집은 없다

최영미

> 맞는 집 구하기는 결혼만큼이나 어려운 숙제이다. 전망이 좋으면 해가 골고루 들지 않는 동향이고, 남향의 중간라인이면 대로변이라 시끄러웠다.

요즘 몇 달간 내 머릿속은 아파트 생각으로 가득하다. 계속 전세를 살아야 하나, 집을 사야 하나를 망설이는 동안 해가 지고 해가 뜬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값이 뛸 테니 어서 내집부터 장만하라는 주위의 충고(협박)를 들은 뒤부터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거의 매일 아파트 타령이라 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켰다.

새 정권이 들어서 달라질 정책 1순위가 부동산이라니. 부동산이 어떻게 '정책' 감인가, 대책이라면 또 몰라도. 부동산 관련 특집을 시청하며 새삼 이 나라의 수준이 한심스러웠다. 정치개혁이나 사회발전 혹은 교육이나 의료도 뒷전으로 밀릴 정도니 문화는 말할 것도 없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집단이 바뀌었는데,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다음 날부터 청약순위니 재건축 따위를 거론하며 향후 집값 동향을 예측하는데 열을 올리는 언론이 지구상에 또 있다면 누가 내게 알려주시기를. 매주 월요일마다 전국 아파트시세를 지역까지 세분해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어느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등락의 폭까지 알려주는데 지면을 통째로 할애하는 친절한(?) 신문이 이 세계에 어디 또 있단 말인가.

결국 우리는 돈밖에 모르는 천민이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연말의 송년모임에서 친구들 서넛만 모여도 어김없이 아파트, 집값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 좀 살만하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파트 평수 넓히기와 아이들 대학 보내기다. 대통령 후보들의 연설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내심 누가 대통령이 돼야 집값이 오를까, 누가 지도자가 돼야 내가 세금을 덜 낼까, 어느 후보가 내 재산을 불려줄까, 계산하며 낙점을 찍었다.

부동산과 주식을 (요즘은 펀드를) 모르면 촌뜨기 취급을 당하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살벌한 수도권 분위기에 질려, 그악스런 부동산중개업자에 시달리다 못해 나는 일산을 떠났다. 혼자 집을 구하러 다니며 많이 힘들었다. 약간의 예외는 있었지만 내가 상대했던 중개업자들의 대부분은 수수료가 적은 물건을 구하는 가난한 손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싼 전세를 구한다면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적도 많았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피곤한 직종이 부동산중개업자이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이리 저리 말을 바꾸는 그들은 현대의 마키아벨리이며 최고의 심리학자라 할 만하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내가 독신이며 이사 날짜가 급함을 귀신처럼 꿰뚫고 좋지 않은 물건을 소개하며 비싼 가격을 부르기 일쑤였다. (없는 사람들일수록 순진하니 속이기 쉽다) 직업의 생리상 정직하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직을 요구하는 내가 잘못일 수도 있다.

일산에서 C시로 옮긴 지 어언 한 달. 셋집이지만 따뜻하고 생활하기 편해 굳이 또 이사할 이유는 사실 없다. 신문과 방송에서 집값을 들먹이지만 않았다면, 내 귀가 얇아 주위의 아우성에 초조해지지 않았다면, 일년도 되지 않아 아파트열병에 걸리지 않았을텐데. 초년의 역마살을 끊고 아담하지만 아늑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데, 돈이 원수이다. 꽤 팔렸던 책을 출판하고도 재테크에 어두워 단돈 1억을 모으지 못한 내게, 맞는 집 구하기는 결혼만큼이나 어려운 숙제이다. 전망이 좋으면 해가 골고루 들지 않는 동향이고, 남향의 중간라인이면 대로변이라 시끄러웠다.

모든 조건이 맞으면 값이 내가 쳐다보기 어렵게 비쌌다. 완벽한 짝이 없듯이 완벽한 집도 없음을 깨달았으니, 내일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겠다. 2008년의 고단한 또 하루가 밝아오기 전에.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광주시 '지역경제 살리기' 다짐 기대 크다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경제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도 기업 살리기와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행보는 '경제 살리기'가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시의적절한 것으로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일 "정무부시장을 없애는 대신 예산, 투자유치 등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경제부시장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올해 시정을 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디자인센터 등 경제유관 기관들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풀가동, 지역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돕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광주상의와 광주·전남경총 등 민간경제단체 역시 고용안정과 중소업체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경제는 전남도청 이전과 건설경기 침체, 도심공동화 등으로 최악이다. 지역민의 80%가 올해 최대현안으로 경제활성화를 꼽을 정도로 지역경제는 어렵다. 특히 서민과 중소업체의 심각성은 그 도를 넘어설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시와 경제 관련 기관·단체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념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었지만 그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은 광주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대과제로 삼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와 기관·단체가 경제분야의 실무적 역량을 극대화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유가 '100달러 시대' 정부 대책 서둘러라

국제원유 값이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맞았다. 새해 첫 거래일인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의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았다. 우려했던 초고유가가 현실화된 것이다.

국제유가는 지난 2004년 9월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선 후 3년여 만에 두 배 올랐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역대 최고 시세인 1980년 3월 101.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주요 산유국의 정정 불안에 미국 달러화의 약세까지 겹쳐 당분간 개선될 조짐은 거의 없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당장 석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섬유와 석유화학, 항공업계는 예상되는 엄청난 충격에 비상이 걸렸다. 전자와 자동차, 유통업 등도 가격인상이나 소비심리 위축 등의 파장을 우려하며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물가관리도 큰 일이다. 고유가는 석유제품뿐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직·간접 비용을 높이게 된다. 유가를 비롯 생활물가가 급등하면 서민생활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미 3%대 중반을 접어든 현실에서 4%대의 고물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고유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만 경제운용의 기본계획을 바꿀 만큼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 때와는 달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내수와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무역수지도 불안해지게 된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유류세부터 인하해야 한다. 정치권은 유류세 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대통령직인수위도 유류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에서 늦출 이유가 없다.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원 확충과 대체에너지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안병현

돈으로 살 수 없는 진료의 조건

진료실에서 의사로서 겪는 힘든 일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비의료인'과의 싸움이다. 현대 의학이 자리잡기 훨씬 전부터 내려오는 민간 전통치료법부터 동네 아저씨의 경험이 담긴 충고, 돈을 벌기 위한 사기까지 환자의 약한 마음을 흔드는 정보와의 싸움이 그 것이다. 때로는 황당한 소리에 흥분할 때도 있고 천천히 조목조목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할 때도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농이 흐르는 중이염 환자의 외이도를 이상한 약품가루로 틀어막아 놓고 병이 나은 것처럼 착각하는 환자도 봤다. 촛농을 귀속에 떨쳐 귀지를 제거하려다 화상을 입거나 외이도염, 고막염 심지어 중이염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 전문의가 권하는 약도 주변의 누군가 좋지 않다고 하거나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상의없이 중단하기도 한다. 암과 같이 위중한 병은 이리저리 좋다는 단방약을 찾아다니다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많다. 이렇듯 환자들은 치료에 좋다고만 하면 정보의 진위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쉽게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의약분업이 시작되려 할 때도 가장 염려스러운 점이 위와 같은 국민정서였다. 본래 의약분업은 환자·의사 간의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전제이지만 우리 정서는 의사 말고도 의료에 조력하는 수많은 분야가 있다. 국민생활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이런 정서는 분업의 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

항생제의 남용 또한 의약분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남용을 줄이기 위해 정작 필요한 조치는, 효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의약분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사'와 '환자'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었다.

항생제 등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처음 병원에 찾아와 처방을 받았을 때는 약을 지시대로 복용한다. 그러다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병원을 찾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약을 끊는데 익숙하다. 의사들은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한 증상을 먼저 개선 시키고자 노력하는데 문제는 증상의 해소와 병증의 완쾌 여부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병원에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한 명 있고 집에서는 알아서 약을 끊는 의사가 따로 있는 것이다. 병은 만성화되고 치료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항생제 사용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무차별적인 삭감 때문이다.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국민계도와 삭감이라는 칼날로 얼마든지 항생제 남용을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올바르면 가짜 약을 먹어도 환자는 좋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치료 기반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건전한 관계가 정립되지 못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병원 쇼핑 등으로 인한 치료비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의약분업의 완성도 환자가 불필요한 약이나 검증 안 된 치료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현대 의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의사·환자 관계가 있어야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하자.

〈안병현·백준이비인후과 원장〉

기고

노일환

국제화로 경쟁력 높이자

새해를 맞아 모두의 발걸음마다 의욕이 가득하다.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우리들도 새로운 각오와 도전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지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올해 전남이 국제화에 더 신경을 기울인다면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전남농업은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국내산 농수산물이 저가의 중국산 등에 밀려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남도가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남농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농업경쟁력제고는 신품종개발을 통한 기능성 부여가 중요하다. '고시히카리'는 일본의 고품질 쌀의 대명사다.

그러나 근래 일본에서는 고시히카리보다 저렴하면서 좋은 품질의 홋카이도(北海道)산 쌀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원래 홋카이도는 기후영향으로 쌀 재배가 어려운 지역이나 홋카이도 농촌시험장에서는 냉해에 강하고, 미질에 큰 영향을 주는 단백질과 아밀로스 함량을 조절하는 유전자 발현을 통해 맛이 좋은 쌀을 개발함으로써 전국적인 브랜화에 성공했다.

전남은 관광입도(觀光立道)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관광루트 이외에 농산물 수확, 삼림욕 등과 같이 자연을 주제로 한 체험형 관광과 광양제철 등 산업체와 협력을 통한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물 설치와 같은 유형의 관광인프라 조성도 중요하지만 도민 각자가 전남관광홍보대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친절이라는 무형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개최지로 확정되었다. 앞으로 4년 후에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는 행정기관의 주도만으로 이루질 수 없다. 도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나아갈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국내는 물론 가까운 일본 등 외국기업이 전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역이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의 작은 친절과 관광홍보에 대한 관심이 지방의 국제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 관광객을 맞기 위해서는 밝은 미소와 청결한 환경이 우선이다.

본 통상사무소에서도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전남산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촉진, 일본관광객유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새 해에도 전남의 각 산업 분야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더욱 분발하자.

〈전남도 오사카통상사무소 소장〉

無等鼓

실용주의

오는 2월 25일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용'(實用)이 화두다. 최고 경영자 출신인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워낙 이를 강조해온 터라 요즘 대한민국은 '개혁'에서 실용으로 모드 전환 중이다.

실용은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철학에서 연유한다. 실용주의는 현실의 결과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철학사상으로 특히 행동을 중시한다. 또 사고나 관념의 진정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인 실용주의 학자다.

이후 실용주의는 미국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토대가 됐다. 다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로 우뚝 서게 된 데는 실용주의라는 밑거름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미국의 실용주의에는 높은 도덕성과 명예를 중시하는 청교도 정신이 녹아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실용주의는 무턱대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법을 철저히 지켜내며 얻은 성과를 존중함으로써 차원을 크게 높였다,

근래 들어 주목된 것은 중국의 실용주의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후 이념에 치중했던 결과로 가난한 대중을 양산시켰다는 뉘우침에 따라 이른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상징되는 '중국식 실용주의'를 만들어 냈다. 사상의 장벽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서구사회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인민들을 배불리 먹이자는 게 그 근간이다.

참여정부에서 한 때 개혁과 실용의 병행론이 제기됐지만, 새 정부 출발을 앞두고 유독 실용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이렇듯 강조되고 있는 실용을 놓고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진정한 실용은 과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비리와 유착에 따른 '천민자본주의'가 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기후 변화에 맞는 농사법 개발 나서야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겨울철에도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없어진 지 오래다. 농업 분야에서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재배 한계선이 북상, 농작물 지도가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추운 강원도 영월에서는 나무가 얼어죽어 사과같은 작물은 재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생산이 가능해졌다. 반면에 전통적인 사과 산지로 꼽히던 대구와 경북 영천은 해마다 폭염으로 사과 품질이 크게 떨어져 아예 사과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고온에도 잘 견디는 포도 농사로 전환되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온도가 오르면서 전국의 농작물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리 재배선은 철원까지 북상했으며 남부지방에서만 발견되던 병충해도 중부지방로 북상했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더 추워졌다', '무척 더워졌다' 식의 경험 의존 농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맞지 않다. 정부와 자자체는 기후 변화에 맞는 품종 개량과 농사법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인자·광주시 남구 백운2동

운전면허 시험에 사고 신고 요령 포함을

최근 독일에 갔다가 신선한 운전면허시험 방식을 접했다. 운전면허 시험의 가장 어려운 관문은 '운전 실기'가 아닌 '교통사고 신고 요령'이었다.

시험장에서 영상으로 사고 장면을 보여준 뒤 응시자에게 6하 원칙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한 것이다. 신고가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되었는 지를 점수로 환산해 운전면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여기가 어디더라", "아까 ○○휴게소를 지났는데", "포도밭이 많았는데" 식으로 사고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채 우왕좌왕 한다.

현장출동을 더디게 하는 이유가 부정확한 신고 때문이라고 한다. 119나 경찰에 신고할 때 6하 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신고가 부정확하면 출동시간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늘어나게 된다.

고속도로 에는 100m마다 '○○선 ○행 ○㎞지점'이라는 표기돼 있고 일정 간격으로 이정표와 비상용 전화가 설치돼 있다.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시험에 사고 신고 요령을 포함했으면 한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